

SENIOR조선

MARCH
2013
VOL.11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Theme of the Month

오, 마이
모터사이클!



Come Inside
은퇴 후 인간관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남자를 꽃피울 봄 셔츠

PIAGET GOUVERNEUR



피아제 자체제작 무브먼트 882P

기계식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듀얼타임존

핑크 골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악어가죽 스트랩



PIAGET

www.piaget.kr

Boutiques : 서울 / 현대 무역센터 02-3467-8924 · 갤러리아 EAST 02-540-2297 · 에비뉴엘 02-778-2300 · 현대 압구정본점 02-3449-5934 부산 / 신세계 센텀 051-745-1252

inside

VOL.11 MARCH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 06 HOBBY** 오, 마이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인생은 삶과 죽음의 간극만큼이나 먼 것일지 모른다.
언제까지 모터사이클을 '로망'이라고만 말할 텐가?
- 10 PEOPLE** 플래닝코리아 이병주 대표
부동산 개발에 문화코드를 적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부동산상품개발PM회사 플래닝코리아 이병주 대표.
그가 말하는 21.5세기 도시 디자인 이야기.
- 12 MEMORIES** 나의 봄, 나의 靑春
사무엘 올만이 말했듯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신선한 정신이다.
한결같은 청춘의 향취를 간직한 두 남자의 20대 이야기.
- 13 ARTS** 봄을 기다리며 매화를 음미하다
봄의 정령 매화.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이 아무진 꽃을 옛 정취가 깃든 민화 속에서 만나보자.
- 14 LOOK** 남자를 꽃피울 봄서츠
겨우내 두꺼운 코트에 가려져 있던 셔츠.
국내 최고의 남성복 전문가 3인이 봄 서츠 스타일링 제안에 나섰다.
- 16 CAR** K9와 인텔코리아 이희성 대표
기아차 K9은 인텔코리아와의 파트너십으로 더욱 진보된 2013년형 모델을 선보였다.
인텔코리아 이희성 대표가 말하는 자동차 그리고 K9.
- 18 SOCIAL** 은퇴 후 '관계' 만들기
퇴직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변화를 초래한다.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
- 20 SENIOR care** 부모님을 위한 전문 홈케어 서비스
편찮은 부모님을 보살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에 맞는 대안을 귀땀한다.
- 21 STATISTICS** 이제는 50+ 시대
전 세계 5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를 넘어섰다.
시니어가 대세인 지금, 각국 시니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 22 INSURANCE** 제대로 든 보험이 효자다
보험이 과연 든든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몇 가지를 엄선했다.
- 23 BULLETIN** 이달의 소식
낙서화가 바스키아의 작품 18점이 서울에 왔고, 인사동에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가게 '5도락'이 문을 열었다.
이달에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들.



COVER

기아자동차 K9은 쇼퍼드리븐카와 오프드리븐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타입의 세단이다. 현재 K9은 차량 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을 주도하는 인텔코리아와의 파트너십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 2월 중순 여의도에서 K9과 만난 인텔코리아 이희성 대표는 "K9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는 선구자적 자동차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경영자로서 지켜나가는 소신과도 꼭 닮았다.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남미영 willena@chosun.com
박철진 soooook49@naver.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인 별디자인
미술교정 김경애 aesiwon@naver.com
교열 최귀열 gwiyeol61@hanmail.net

MARKETING & ADVERTIS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출력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탭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가를 원한다면,
클럽메드로 떠나세요



휴가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클럽메드

여름을 더욱 빨리 만나세요! 3~5월 GOOD BONUS-성인 129만원 부터
발리, 푸켓, 빈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체러팅 비치, 오키나와 카비라 비치, 몰디브 카니

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왕복 항공권
공항 픽업
서비스

+



타입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객실

+



1일 3식의
다채로운
레스토랑

+



오픈바에서
즐기는
무료 음료와 주류

+



어린이를 위한
연령별
키즈 클럽

+



스포츠 및
레저 액티비티
G.O 강습

+



매일 밤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02-3452-0123
www.clubmed.co.kr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HOBBY

오, 마이 모터사이클!

남자, 그리고 그 곁에 무심한 듯 비스듬히 세워진 모터사이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몇 년 전 개봉한 캐나다 영화 '윈 위크'를 기억하는지. 소심하고 겁 많은 주인공 벤은 어느 날 갑자기 암선고를 받는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도 생존 확률이 희박한 상황. 병원을 나서며 그는 평소에 그토록 꿈꾸던 모터사이클을 장만한다. 그 길로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 작정이다. 벤은 말한다. 나는 치료보다는 모험을 택하노라. 그리고 영화는 묻는다. 남은 날이 단 하루, 일주일, 한 달뿐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어떤 이를 만나겠는가? 어떤 꿈을 이루겠는가? '윈 위크'는 인생에 대한 영화이자, 사랑에 대한 영화다. 그리고 한 남자와 모터사이클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아름다운 숲과 해변을 누비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엉덩이가 들쭉이잖을 남자가 멋이나 될까. 남자라면 한번쯤 모터사이클을 마음에 품어봤을 것이다. 붉게 물든 석양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기분을 상

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마치 로드무비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을. 하지만 모터사이클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로망이 아니다. 대형 모터사이클을 취미로 즐기는 이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주변에서도 주말마다 동호회원들과 열을 지어 투어링을 나서는 라이더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국내 대형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최소 2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멋들어진 자연과 길 위에서 맺는 새로운 인연. 그리고 진자 나의 얼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남은 날이 단 하루, 일주일, 한 달뿐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어떤 꿈을 이루겠는가? 모터사이클을 타겠는가? 어쩌면 모터사이클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인생은 벤이 겪은 삶과 죽음의 간극만큼이나 먼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당신의 로드무비는 시작된다.

바이크에 살고 바이크에 죽는 남자 VS 남자

멋을 아는 남자

할리데이비슨 H.O.G. 코리아챔퍼 윤귀동 회장

전 세계 1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할리데이비슨 공식 동호회 H.O.G.(Harley Owners Group)의 코리아챔퍼 윤귀동(54·의류사업) 회장은 20년 넘게 할리만을 고집한 진정한 할리 마니아다. 10년간 H.O.G. 코리아챔퍼 경기대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올 초 코리아챔퍼 회장으로 취임했다. H.O.G. 코리아챔퍼는 14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사이클 동호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3 때 처음 바이크를 접했다는 윤 회장은 1989년 할리에 입문했다. 현재 그가 타는 모델은 할리의 베스트셀러 '울트라 클래식 일렉트라 글라이드'. 뛰어난 승차감과 웅장한 디자인을 앞세운 투어링 계열의 모터사이클이다. 2인용 시트가 장착되어 아내와 함께 동승하기에 안성맞춤. "90년대 초부터 아내와 함께 투어링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전혀! 오히려 아내가 주말투어를 기다릴 정도입니다." 분위기가 있는 음악을 들으며 즐기는 아내와의 투어링은 최상의 로맨틱 데이트라 할 만하다. 윤 회장은 할리데이비슨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전성을 꼽는다. "바이크 자체의 안전성도 높지만 할리만의 문화가 남다른데, 절대 고속으로 주행하는 법이 없죠. 평균시속 80~100km로 달립니다. 투어링을 함께 하는 회원들 역시 '준법운전'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요." 내친김에 윤 회장은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우리가 터프한 이미지로만 각인된 건 아쉬워요. 바이크 조작 자체가 워낙

섬세한 작업이라 라이더들의 성향도 대체로 섬세한데 말이죠. 가족재킷과 워커요? 이 역시 멋보다는 안전을 위한 장치죠. 넘어지거나 바퀴에 밟히더라도 외상을 입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생활의 고단함을 라이딩을 통해 풀어낸다는 윤 회장. 동호회 회원들과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멋진 풍광,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 보면 에너지가 절로 생긴다는 그는 바이크를 자신의 본신이라고 말한다. "H.O.G. 일본챔퍼에 여든여섯 살의 고령 라이더가 한 분 계세요. 나 역시 그분과 같이 오랫동안 바이크를 타고 싶습니다. 아흔이 넘을 때까지." 투어링용 모터사이클은 속도를 내는 기종도 아닐뿐더러 핸들링이 수월하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다 숙련된 라이더로 거듭나기 위해 윤 회장은 체력 관리도 철저하다. 술이나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헬스나 등산 같은 운동도 꼬박꼬박 챙긴다. "전국 곳곳을 몇 바퀴나 누볐지만 갈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 아직 가 볼 곳이 많죠. 가다 쉬다 가다 쉬다 여유롭게 세상구경을 하다 보면 자동차로 다닐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때문인지 그의 스케줄은 날이 채 풀리지 않은 벌써부터 뻘뻘하게 한다. 투어링뿐 아니라 동호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불치병아동돕기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올바른 바이크 문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할리데이비슨 특유의 배기음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야생마의 말발굽 소리 같다고나 할까요.

“라이더에게는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기 마련이죠. 내 스타일이요? 바로 ‘스피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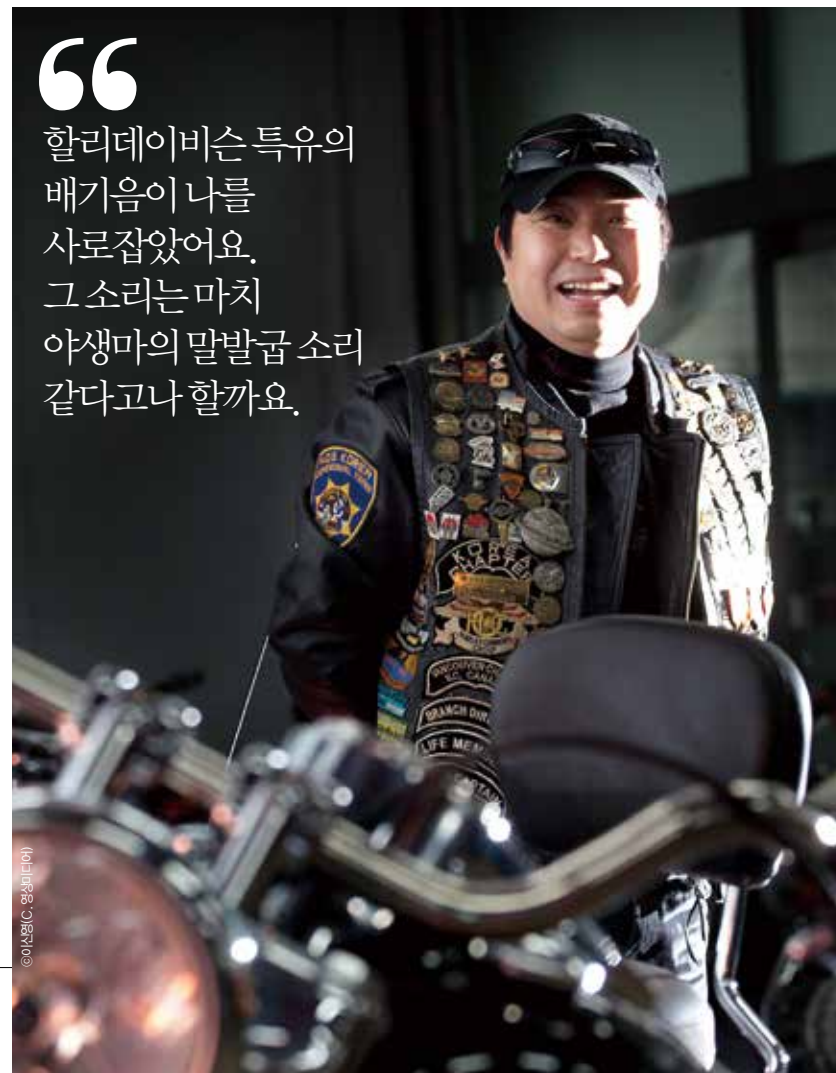
스피드를 즐기는 남자
BMW MCK 김계상 회장

BMW 모터사이클 동호회 MCK(Motorrad Club of Korea)의 김계상(57·석유유통사업) 회장은 현재 BMW의 R1200GS와 K1600GTL을 탄다. 이들은 속도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델. BMW의 간판스타 K1600GTL의 경우 최고 시속이 자그마치 280km에 달하고, 온로드와 오프로드 어디에서도 손색이 없는 R1200GS 역시 최고 시속이 250km에 이른다. 결혼 후 아내의 반대 때문에 바이크를 처분한 그는 5년 전 화려한 복귀를 선언했다. 나이 선에 접어들면서 불현듯 바이크 생각이 났다고,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았어요. 탈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다 잠시 잊고 지내던 바이크를 떠올렸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살아야겠다 구입하고 일주일 만에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했다. 무게가 250kg에 육박하는 대형 바이크를 조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 라이딩 스쿨에서 '집중 과외'를 받은 후 MCK 활동을 통해 자연히 기량을 늘렸다. 김 회장은 매주 일요일이면 10~20명의 MCK 회원과 함께 강원도 등지로 주말투어를 떠난다. 봄, 가을 열리는 MCK 1박 2일 정기투어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회원들과 수시로 즐기는 전국 투어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그를 라이딩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로드마스터가 지시하는 룰을 지켜야 하기 때문.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 같은 룰을 지키는 게 라이딩 투어의 기본"이라고 김 회장은 말한다. 그러나 라이딩 중간 자유구간이 주어졌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시속 250km로 질주하는 기분이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다"는 그다. 구불구불한 와인딩 코스 역시 그가 열광하는 것 중 하나다. 강원도 홍천 오대산의 구룡령 고개를 넘어가면 근사한 와인딩 로드가 나오는데, 이곳이 그가 자주 찾는 코스다. "생각하면 머리가 핑핑 돌죠. 30분 이상 와인딩을 하다 보면 어지럼고 취한 기분이 듭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못할 일이죠." 다행히 스키와 수상스키, 스노스쿠버 등 다양한 운동으로 다져놓은 김 회장의 체력은 이미 회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다. 젊은층과 투어링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 하지만 스피드를 즐기는 일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충분히 연습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바이크라는 게 신기하게도, 늘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만 향해요. 댄 생각할 겨를이 없죠. 매 순간 집중하게 됩니다. 라이딩을 한 번 할 때마다 영화 한 편을 찍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지난 한 해 3만km를 달렸다는 그는 바이크로는 어딜 가든, 얼마를 달리든 피곤한 줄을 모른다고 말한다. 주말투어 시 종일 800km, 즉 15시간 넘게 달려도 집에 돌아가면 힘이 팔팔 된다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타뵈야 알아요. 마주 오는 바람을 가르는 기분... 속도를 내어 달리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게 바이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죠." 몸은 집에, 직장에 매여 있지만 마음은 늘 바이크와 함께 있다는 김 회장의 다음 목표는 오프로드 바이크, 유연성과 과감성을 길러 꾸준히 도전할 작정이다.



Copyright/mulbis



Copyright/mulbis

HARLEY-DAVIDSON FATBOY

1990년 출시 이후 전설로 자리 잡은 팻보이. 영화 ‘터미네이터2’의 추격신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가 타고 나온 모델로 유명하다. 지름 41.3mm의 두꺼운 프론트 서스펜션과 커다란 크롬 헤드램프 등이 장착된 외관에서부터 남성미가 물씬 풍긴다. 총알이 날날이 박힌 듯한 ‘실버 볼렛 디스크 캐스트 휠(silver bullet hole disc cast aluminum)’ 또한 터프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배기량 1690cc의 공랭식 트윈캠 103B 엔진을 탑재, 파워풀한 라이딩이 가능하다. 시트고가 690mm로 낮아 초보 라이더도 비교적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YAHAMA V-MAX

1985년 탄생한 아마하의 네이키드 바이크다. 지난해 영화 ‘고스트 라이더 3D: 복수의 화신’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타고 나와 다시금 화제가 됐다. ‘괴물’이란 별칭에 걸맞게 1679cc의 수냉식 V4 DOHC 엔진을 탑재한 V-MAX는 최고출력이 200마력(9000rpm)에 달한다. 차체 곳곳에 알루미늄 재시를 적용해 무게는 최대한 낮췄다. 근육질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외관은 V-MAX에 역동성을 더하는 요소다. V-MAX는 전 세계적으로 한정 판매되는 모델로 희소 가치도 지닌다.

“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I’ 계약서에는 촬영하는 동안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촬영장으로 이동할 때 모터사이클을 타는 게 허락된 유일한 장소는 호주였다. 나는 호주에서 ‘몰랑루즈’와 ‘스타워즈 에피소드 II · III’을 촬영하면서 거의 2년을 지냈다. 미국에서 일할 때는 회사 리무진이나 승용차를 타고 스튜디오까지 가야 했다. 차만 타고 다니는 건 정말 고역이었다. 그래서 ‘몰랑루즈’의 바즈 루어먼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이야기했다. 나를 캐스팅하고 싶다면 리허설을 포함한 8개월간의 촬영 기간에 모터사이클 타는 것을 허락해줘야 한다고. “나는 언기를 하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요. 그리고 나는 모터사이클을 탑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전부입니다.” 나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8개월 동안 모터사이클을 타지 못하게 한다면,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이 계약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난 8개월이나 모터사이클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눈빛으로도 분명하게 말했다. 결국 그들은 호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내가 모터사이클 타는 것을 허락했고,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려주었다.

영국 배우 이완 맥그리거
<이완 맥그리거의 레알 바이크> 중

HONDA GOLDWING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골드윙은 ‘모터사이클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Honda 최고의 투어링 바이크다. 지난 2007년에는 업계 최초로 모터사이클 전용 에어백을 장착한 모델을 선보였다. 충돌 시 라이더의 충격을 흡수하고 바이크가 앞으로 쏠려나가는 속도를 늦춘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조절식 리어 서스펜션 등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획기적인 전자식 후진장치는 골드윙의 최고 자랑. ABS(Antilock Braking System)와 CBS(Combined Brake System) 브레이크로 기후 및 환경 변화에도 정밀한 제동력을 발휘한다. 배기량 1832cc의 6기통 엔진 탑재.



KTM 250EXC-F

250EXC-F는 KTM의 대표적인 엔듀로 바이크. 지난해 세계 슈퍼바이크 챔피언십(World Superbike Championship) E1(Enduro 1)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248.6cc의 4 스트로크 DOHC 단기통 엔진을 탑재한 250EXC-F는 배기량 이상의 강력한 엔진 파워를 뽐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롬 몰디브덴강 소재를 채용한 차체는 매우 가볍다. 총량 107.5kg. 덕분에 오프로드에서 경쾌한 핸들링이 가능하다. 형태도 매우 슬림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쉬운 편이다. 250EXC-F는 도로주행도 가능하다.



BMW K1600GTL

2010년 출시된 K1600GTL은 BMW가 만든 최초의 6기통 투어링 바이크다. 배기량 1649cc의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해 주행성능이 뛰어난 게 특징. 또한 건조중량이 동급 타 모델보다 약 50kg이나 가벼운 321 kg으로 리터당 21.73km라는 최적의 연비를 구현했다. DTC(Dynamic Traction Control),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등 최첨단 안전장치와 도난방지 기능의 모터사이클 전용 내비게이션 등 편의장치를 적용했다(옵션). 2단계 단일 구획 시트로 라이더와 뒷좌석 동승자 모두 장시간 안락한 주행이 가능하다.



초보를 위한 모터사이클 상식

종류

모터사이클은 용도에 따라 크게 온로드(onroad)와 오프로드(offroad), R-타입으로 나뉜다. 온로드는 일반적인 포장도로를 달리는 용도를 말한다.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투어링 바이크, 높은 핸들과 낮은 좌석으로 대변되는 아메리카 스타일의 크루저, 경주용 바이크를 시판용으로 만든 스포츠 바이크, 바이크의 외장을 감싸는 카울이 덮여 있지 않아 엔진이나 프레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형태의 네이키드 바이크, 그리고 배달 등 각종 비즈니스에 주로 이용되는 언더본 바이크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용도의 오프로드는 산악용과 모기용이 있다. 온로드보다 차체가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숲이나 해안 코스 등에서 타는 엔듀로 바이크, 익스트림 스포츠용 트라이얼 바이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R-타입은 공식 경주용으로, 최고시속이 300km가 넘는 기종도 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겸하는 바이크도 있다. 온로드 바이크는 험한 길을 달리기 어렵고, 오프로드 바이크는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듀얼바이크는 온·오프로드를 모두 달릴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바이크인 셈이다. 듀얼 퍼포즈 또는 멀티 퍼포즈 바이크로 불린다.

면허 취득

대형 바이크의 오프 라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25cc 이상의 바이크를 몰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따라 한다.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필기시험은 면제다. 참고로 125cc 미만의 스쿠터는 원동기형 2륜차로 분류된다. 이는 1·2종 보통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면허 없이 몰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 기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을 엔진 배기량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배기량의 모터사이클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63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사이가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을 제외하고 말이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PEOPLE

플래닝코리아 이병주 대표 21.5세기에 부응하는 도시를 디자인한다

미래를 내다본 도시 공간 디자인은 물리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춘 건축에서 탈피,
도시건축에 문화코드를 적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병주 대표.
우리 문화의 종자를 발굴해 우리만의 언어, 빛, 형태를 개발하고
이를 건축에 접목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를 만났다.

“창조의 핵심은 문화와 디자인이다. 미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유한 유산과 더불어 타고난 심미적 언어를 결합해 완성되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첨가물이 아닌 산업의 본질적 요소다.”



쿵쿵쿵...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공사 중인 현장은 늘 있게 마련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수고, 보수하고, 새로 짓는다. 서울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레고 블록 만들듯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건물이 도심 속 건물 틈을 비집고 들어선다. 도시의 마천루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지표로 자부심을 더해주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도심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한 번 바라보라. 어떤 건물은 이만저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어서 그 공간 속에 저 건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적잖이 눈에 띈다. 레고 블록이라면 해체해서 다시 조립이라도 하겠지만 건축물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부조화 속 공간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피로감은 더해가기만 한다. 이러한 때, 21.5세기를 내다본 도시 공간 디자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가 있다. 플래닝코리아 이병주 대표는 물리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춘 건축에서 탈피, 도시건축에 문화코드를 적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물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기 좋게 만드는 치장술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미학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실현하고자 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디자인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그 사회 속 구성원들의 문화, 감성, 사고방식,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플래닝코리아 이병주 대표. 그는 창조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그의 드로잉북을 보면 마치 공상과학물 같다. 어떻게 이런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상을 현실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오피스 건물 ‘부띠끄모나코’다. 2008년 완공된 이 건물은 도식화된 양식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스타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기존의 고층아파트나 주상복합빌딩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형대 밖에 없었다. 실내 공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 27층, 지하 5층 규모의 부띠끄모나코는 172가구에 49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인젠가 그가 스케치했던 구름다리는 방과 방을 잇는 작은 교각을 만들어 구현했고, 개별 실내 정원을 만들어 ‘정원은 주택에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도 했다.

현재는 오름, 용암동굴, 꽃지왕 등 제주 고유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제주 에어레스트 시티’를 진행 중이다. 휴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상품 모듈을 통한 ‘정주자족 시스템’을 활성화해 세

계 최초의 휴양형 창조경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공간을 소비하는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전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21세기에는 문화적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몇 평형인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집인지, 어떤 공간인지 등 문화적 가치를 따지게 된 것인데,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읽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성이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획일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 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봐야 한다.”

우리 문화의 종자를 파종해야

이병주 대표는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해지스’, ‘닥스’, ‘툼보이’, ‘파크뷰’, ‘SK뷰’ 등 들으면 알만한 굵직한 브랜드를 만들고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꿈은 도시를 디자인 하는 것. 그래서 통합부동산상품개발PM회사 플래닝코리아를 설립해 건물의 콘셉트 구상, 설계,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CPM(Creative Project Management)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창출한 문화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고유의 문화적 종자는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화적 단절을 겪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는 경제개발 논리를 앞세워 서양 문물을 따라가고 모방하는데 급급하다보니 정체성이 부족하고 다소 혼재된 모습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다. 미래의 화두는 우리 문화의 종자를 개발해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과 다른 우리만의 유전인자를 발굴해 새로운 문화·예술·산업 유전인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대표는 인터넷과 SNS로 전 세계가 소통하고 연결되는 이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는 전통과 고유문화에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후발 도시는 앞선 도시의 개발 형식과 형태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두바이는 뉴욕을 모방하고, 우리는 두바이를 모방해서 간척 사업을 벌이고...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측면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 재생이나 개발 사업 등은 사회설치예술과 다름없다.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대대로 배양해온 고유의 유전인자를 건설에 접목시켰을 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품 건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우리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기류로 우리만의 언어, 빛, 형태를 개발하고 이를 도시 건축에 접목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병주 대표는 광고업계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 ‘해지스’, ‘닥스’, ‘인디안’, ‘툼보이’, ‘파크뷰’, ‘SK뷰’ 등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리뉴얼했다. 2000년 통합부동산상품개발PM회사인 플래닝코리아를 설립한 후 청담동의 복합문화공간 ‘네이처 포럼’, 주상복합 오피스 건물 ‘부띠끄모나코’ 등을 기획했으며, 현재 휴양형 창조경제도시 ‘제주 에어레스트 시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사회설치예술가로서 창의적 사고와 건축콘셉트의 뿌리가 담긴 ‘알레르기’(1997), ‘근접조우’(1999), ‘東流 2006+의·식·주 트렌드’(2003), ‘백남준 미디어 다리’(2010), ‘기류채집도’(2011), ‘생각의 종자’(2011) 등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MEMORIES

나의 봄, 나의 靑春

사무엘 올만의 표현대로라면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신선한 정신 그 자체다. 한결같은
청춘의 향취를 간직한 두 남자가 회상하는 ‘나의 20대’.

신상목 우동명가리야마 대표

저의 20대는 무척 단조로웠어요. 공부했고, 일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로망 레이스 1989년 대학에 입학한 후 약 3년간은 신나게 놀았어요. 어린 마음에 “저놈, 잘나가는 놈”이란 소리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이나 스키장을 다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일이었죠. 그때 몰랐던 제 첫 차가 까만색 로망 레이스예요. 지금은 추억의 차가 됐지만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때는 뭐랄까, 남들의 기준에 제 자신을 맞춰던 것 같아요. 남들 눈에 기준을 두고 나를 맞춰가는 일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이었어요.
중앙도서관 3학년 말부터 다급한 마음이 들어요.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이대로 계속 놀다간 고등 룸펜이 되겠다 싶었죠. 그때부터 고시 준비에 몰입했습니다. 이 시기가 저의 내적 성장기라 할 수 있습니요. 대체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다고 할 때는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지못한 하지 않고 있을 때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결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몸은 불편하지만정신 마음만은 편안하죠. 그 시기 제가 그랬어요. 수험생활에 열중한 스물어섯 살, 그 한 해는 대학 중앙도서관에 불박혀 지냈어요. 아침 7시에서 밤 10시 반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공부했죠. 살면서 그 일년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요. 공부할 양이 엄청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제 자신을 완전히 연소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불안감이나 근심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무고시 고시에 합격한 때가 스물일곱 살, 동기들과 비교하면 그저 보통의 나이에 무난하게 합격한 셈이에요.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죠.

1994년 1차에 합격했는데, 그해 2차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워낙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한 해 더 공부해서 2차는 내년에 합격하자’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이듬해 2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되짚어보면 그때 2차 시험을 보기까지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공부를 한 것도, 그렇다고 논 것도 아닌 상태라고 할까요.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들었던 것 같아요. 4개월 정도를 그렇게 방황하다 2차 시험을 치르고 95년 3월 발표가 난 걸 보니 컷라인이 62.5점이었어요. 제 점수가 62점이었는데요. 너무 아쉬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저와 같은 62점대에 많은 이들이 몰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 망설이고 방황했던 거예요. 누가 더 동기부여를 했는가, 의지를 가지고 매달렸는가의 차이일 뿐이었죠. 이후 1년간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96년에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죠. 여기서 저는 알았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임하다 보면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물 흐르듯 사는 삶 제 아식대는 ‘물 흐르듯 사는 삶’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없었죠. 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이 되는 것. 남들이 그것을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니 별 생각 없이 맞춰 살았어요. 정작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나를 살아가는 삶이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데요. 지금도 ‘물 흐르듯 살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판단의 주체가 분명 제 안에 있으니까요.



오진권(63) 대표는 1975년 안양의 작은 라면가게를 시작으로 각종 음식점을 운영했다. 1987년에는 신림동에 ‘놀부보쌈’의 전신인 보쌈집을 개업 ‘대박신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놀부보쌈은 1990년대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명성을 떨쳤다. 이후 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한다. 2003년에는 놀부보쌈 대표이사에서 사임, 새로운 음식 체인을 잇따라 성공시킨다. 현재 ‘마리스코’, ‘샤월에보리밥’ 등 9개의 음식 체인과 2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 객원교수로 외식사업에 대한 강의도 한다. 특히 2006년부터는 매일 아침 사당역 부근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밥파’ 봉사활동까지 실천하고 있다. 올해 과제는 중국 장춘에 이탈리아인 퓨전 레스토랑 ‘크레이지스푼’을 정착시키는 것과 베트남 코토에 레스토랑과 조리아카데미를 오픈하는 것이다.

오진권 이야기있는와식공간 대표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군대에서 보냈어요. 그곳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인생을 계획했죠.
육군 기술행정사관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아버지가 영화제작에 투자했다 실패하면서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전국을 떠돌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했어요. 장교, 구두닦이, 여관종업원, 술집메이커 등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모두 스무 살이 되기 전의 일이죠. 배운 게 있나, 가진 기술이 있나... 별수가 없을 것 같아 일단 군대에 가자, 싶었죠. 무작정 후임동에 있는 병무청으로 갔는데, 처음 지원한 해병대는 너무 경쟁이 심해 떨어졌어요. 그 다음 눈에 띈 것이 육군 기술행정사관 모집 공고였고, 일주일 만에 논산훈련소로 갈 수 있다길래 지원을 했죠. 그렇게 장기 복무 하사관으로 논산에 가니 포대 훈련병들이 ‘말뚝’이라고 어찌나 놀려대던지(웃음). 물론 저야 평생 군인으로 살 것이라며 마음먹진 않았어요. 기껏해야 일반 사병보다 2년 정도 더 군대에 머물며 여유를 벌어보자는 생각이었죠. 당시 하사관 봉급이 1만3000원이었는데, 매달 집에 1만 원을 부칠 수 있었어요. 원통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전투수당을 받으려고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스물두 살에 돌아와 부산 통신기지청에서 1년을 보낸 후 안양 공병단 통신과 선임 하사로 발령이 났지요.
취사반 안양 공병단에 근무할 때,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지휘관이 저를 부르느 거예요. 그러더니 사병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게 대뜸 취사반을 맡기더군요. 통신과 선임 하사이다 보니 좀 한가해 보이고, 또 서울대기라고 푹푹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사병식당을 맡았죠. 그랬더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병들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기껏 된장국이나 어묵볶음 같은 반찬을 내놓을 뿐인데, 집밥처럼 차려주는 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제게 별다른 재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육군본부에서 내려준 재료대로, 매뉴얼대로 요리한 게 다였죠. 워낙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전임자들은 위에서 내려온 재료를 슬쩍 빼내어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하는 꼼수를

부린 모양인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늘 정량의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10인분이든, 1000인분이든 정성을 다하면 표가 나는 법이죠. 이후 기분이 좋아진 지휘관이 간부식당도 맡아달라고 했어요. 간부식당은 특별한 메뉴일이 없었죠. 고민 끝에 저는 안양에서 종로2가 학원까지 요리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예비 주부를 사지에서 실렁탕이며 찜뽕밥 같은 음식의 조리법을 배워 다음 날 점심으로 내놓곤 했는데, 당시 간부들이 출근버스에서 점심 메뉴를 이야기거리 삼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해 1년간 간부식당을 운영한 것을 계기로 저는 제 소질을 발견하게 된 셈이죠. 식당을 운영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저 자신일요. 식당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스물세 살에 처음 했습니다.
안양의 오 상사 그리고 스물다섯 살에 안양 역전에 네 펄짜리 분식점을 냈어요. 이름이 ‘구름다리’였죠. 퇴근 후에 운영을 했는데, 주 메뉴가 라면이었어요. 석유공로에서 풀여낸 100원짜리 라면. 1년간 열심히 했더니 당시 돈으로 300만 원쯤을 모으게 됐고 이후 칼국수집, 경양식집, 당시 유행하던 스탠드까지 몇 개의 가게를 연이어 오픈하게 됐어요. 스물일곱 무렵이었는데, ‘안양의 오 상사’라고 하면 당시 안양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서른한 살이 되는 해에 육군 상사로 전역을 했죠.
공정과 열정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공정한 마인드였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운 시절 배를 굶으면서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사업에 실패해 택시운전을 하며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훌륭한 식당을 만들겠다는 일념을 버린 적은 없었어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육군 하사관으로, 택시운전가사로 살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모험을 택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죠.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ARTS



장생도
만개한 매화 주변의 학과 하얀 털스러운 불로초가 조화를 이룬다.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그림은 다른 민화 그림에 비해 다소 값이 비싼 편. 때문에 모조품도 많다.



화조도
매화는 특히 달밤에 향이 좋기로 유명하다. 붉은 매화 위로 둥근 달이 걸려 있다. 매화가 흐드러진 화려한 달밤, 나란히 앉아 즐기고 있는 두 마리 새를 통해 정다운 부부의 금실을 드러냈다.



지독화
‘월오’라는 이가 붓 대신 손끝에 먹물을 묻혀 그린 그림. 붓으로는 낼 수 없는 작가의 독특한 필력이 드러난다. 일반 민화와는 달리 양반들이 향유했던 수묵화의 느낌이 강하다. 고목에서 핀 매화를 아무런 채색 없이 표현했다.



책가도
책과 서가의 여러 물건을 함께 그린 책가도는 조선시대 선비 방의 필수 아이템. 가운데에 오이를 그려 넣어 다복의 의미까지 더했다.

봄을 기다리며 매화를 음미하다

봄의 정령 매화. 흑독한 추위를 이기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이아무진 꽃을 선인들은 글로, 그림으로 앞다투어 칭송했다.
옛 정취가 듬뿍 깃든 민화 속에서 매화를 만나보자.

물을 거니니
달이 나를 따라오네
매화꽃 언저리를 몇 번이나
서성이며 돌았건고
밤 길도록 오래 앉아
일어설 줄을 몰랐더니
향기는 옷깃 가득
달그림자는 봄에 가득.

16세기 조선의 지성 퇴계 이황의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의 한 부분이다. 생전 매화를 소재로 90여 수 이상의 시를 지은 이황의 매화 사랑은 유독 각별했다. 매화를 ‘매형(梅兄)’ 또는 ‘매군(梅君)’으로 높여 칭했음은 물론, 임종 직전 가솔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였다고 하니 그 정도를 알 만하다.

이렇듯 조선시대 양반문화 속에서 매화는 추앙 받는 꽃이었다. 선비의 고결한 성품을 상징한 이 꽃이 정통 회화의 조류를 모방한 민화(民畵)의 단골손님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 “알다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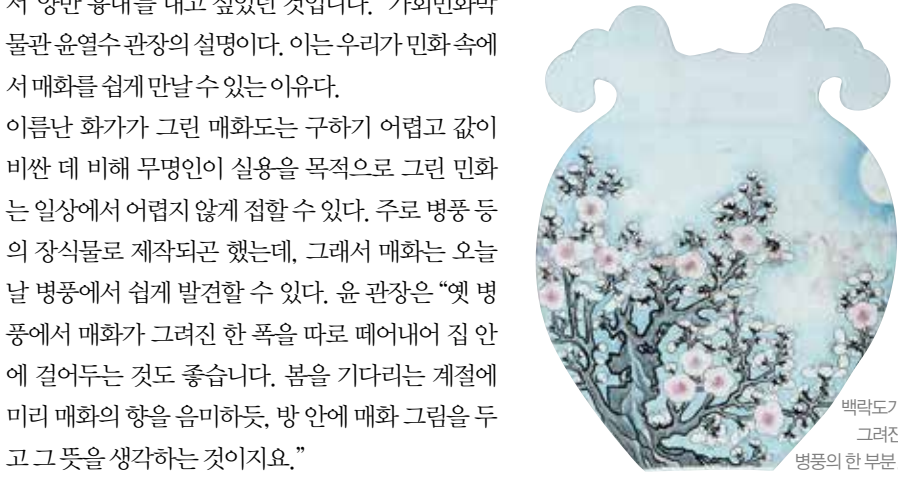
화려한 색감의재기넘치는 민화

옛 도자기나 서적은 일찍부터 수집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거래된 데 비해 민화는 몇몇 애호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민화는 부쩍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관장은 “예전에는 양반의 수묵화를 높이 샀지만 요즘은 화려한 색감의 재기 넘치는 민화가 인기”라고 설명한다. 그림의 자산 가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통상 1폭당 100~200만원 선에 거래되는 민화는 여타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연대와 채색, 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매긴다. 물론 아직까지 일반인의 매매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재테크’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 윤 관장은 말한다. “돈보다는 취미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테크로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지요. 물론 주식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서화는 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요.”

봄을 맞아 매화가 그려진 민화 한 점 구하고 싶다면 인사동 등지의 골동품 가게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품 민화를 찾기란 쉽지 않지만 전문

감정인의 도움을 받거나 감정이아카데미에서 기본 소양을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윤 관장은 “투자 개념이 아니라 보고 즐기 위해서라면 모조품도 상관없지요. 매화를 즐기려는 뜻이 중요한 것이지 진품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깐요”라고 덧붙인다.

모든 예술품을 감상하는 일이 그렇듯, 민화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안목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책을 통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실물을 자주 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좋은 민화를 오랜 시간 감상하다 보면 자연히 안목이 생긴다는 것. 서울에서는 종로의 국립민속박물관과 가회민화박물관을 방문하면 여러 종류의 민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백락도가 그려진 병풍의 한 부분.

LOOK

남성복 전문가 3인 추천 남자를 꽃피울 봄 셔츠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는 날, 가볍게 나들이를 떠나는 날. 옷장을 열었을 때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아이템은? 그렇다. 바로 셔츠다. 소재와 디자인은 천차만별이지만 ‘셔츠’라는 이름 아래 대동단결한 이 만능 아이템의 연출법은 다양하다. 겨우내 칼날처럼 매섭게 불던 바람의 끝이 무더진 3월, 두꺼운 코트에 가려져 있던 셔츠의 진가를 드러낼 스타일링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남성복 전문가 3인이 나섰다.



남성복 멀티브랜드 숍 '란스미어' 이상현 MD

스트라이프 셔츠로 강한 남성미를 연출하라
맞춤복을 근간으로 다양한 남성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는 남성복 편집매장 '란스미어'. 란스미어에서는 비즈니스 룩부터 캐주얼 룩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만날 수 있다. 란스미어의 이상현 MD는 수트 룩을 위한 비즈니스 셔츠를 선택하는 노하우와 이를 근사하게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셔츠는 정갈하고 내 몸에 맞게 떨어지는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비즈니스 수트 룩을 위한 셔츠라면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목둘레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얼굴이 넓은 편이라면 칼라가 긴 것을, 긴 편이라면 옆으로 넓게 퍼진 칼라를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션에 정답은 없지만 비즈니스 룩은 어느 정도 원칙을 지켜야 스타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추천할 만한 비즈니스 셔츠로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를 꼽았는데, 최근에는 셔츠 트렌드가 체크에서 스트라이프로 옮겨가고 있다고. “스트라이프는 꽤 남성적인 패턴입니다. 버터컬로 떨어지는 특유의 패턴이 강한 남성미를 보여주어 중요한 자리에 나설 때 추천할 만합니다”라며 스트라이프 셔츠를 친근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스타일링 팁을 알려주었다. “핵심은 '컬러'에 있습니다. 대개는 스트라이프 속 컬러와 매치되는 솔리드 컬러의 넥타이를 가장 많이 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트 재킷도 톤이 다른 같은 계열의 색상을 입으면 좋습니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좀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하려면, 재킷 역시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이때 셔츠와 재킷의 스트라이프 간격이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해야 고루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선을 모으는 효과가 있는 다크 브라운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 셔츠. 지나치게 강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셔츠와 재킷의 톤과 색을 통일한다.
란스미어 면, 39만원



스탠드 칼라의 멀티컬러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스트라이프가 강하기 때문에 시험적인 스타일링이 부담스러운 시니어라면 솔리드 컬러 아이템을 매치할 것.
란스미어 면, 39만원



와이드 스프레드 칼라의 양쪽을 안쪽 단추로 고정할 셔츠. 밝은 블루 스트라이프가 부담스럽다면 톤 다운된 블루 재킷이나 프티 스카프 등으로 무게감을 줄 것.
란스미어 면, 39만원



칼라의 두 버튼과 양쪽의 단추가 포인트가 되는 셔츠. 블루와 브라운 컬러의 밝은 톤이 몸이 평창대 보이게 하므로 왜소한 몸의 시니어에게 추천한다.
란스미어 면, 39만원



신세계 'My Boon' 바이어 최재혁 팀장 신선한 느낌과 활동적인 이미지의 블루 셔츠를 갖춰라

“셔츠는 쉽게 쇼핑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구매하죠.” 신세계 편집매장 '마이본' 바이어 최재혁 팀장의 말이다.

지난해 6월 청담동에 론칭한 이후 감각적인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마이본은 기획 단계부터 그가 참여한 곳이다. 최 팀장은 마이본과 더불어 신세계 백화점 내 대표적 남성복 편집매장으로 알려진 '맨온더본'과 '맨즈컬렉션'의 바이어이기도 하다. 그는 남성들이 셔츠를 구매할 때도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매장에 가면 셔츠가 대부분 접혀 있기 때문에 많은 남성분이 미안한 마음에 입어보지 않고 구매합니다. 하지만 셔츠야말로 반드시 입어봐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셔츠가 내 몸에 맞는지 구분할 수 없으면 가까운 맞춤복 매장에 가서 비즈니스 룩을 위한 셔츠와 옥스퍼드 소재의 캐주얼 셔츠의 크기를 맞춰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 몸에 편한 사이즈를 알 수 있어 다음부터는 셔츠를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는 '블루 셔츠'를 올봄 추천 아이템으로 선정했다. “블루 컬러는 대부분 남성들의 피부 톤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편안한 캐주얼 룩을 연출할 때는 블루 컬러의 신선한 느낌이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줍니다.” 최 팀장은 특히 '소재'에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블루 컬러는 옥스퍼드와 삼브레이 소재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때 팬츠는 베이지 컬러가 무난하죠. 자타공인 남성 패션의 메카로 불리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가리켜 '하늘과 땅의 색'이라 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배합이라고도 합니다.”



셔츠의 전면과 칼라에까지 커다란 플라워가 프린트되어 화사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발렌시아가 by 무이 면, 80만원대



'마린 룩'을 재해석한 프린트가 경쾌한 리넨 셔츠. 클래식 팬츠와 매치하거나 셔츠 컬러와 같은 계열의 솔리드 컬러 아우터를 입어 전체 스타일을 중화할 것을 권한다.
장폴고티에 by 무이 리넨, 50만원대



셔츠와 어깨 부분을 깔끔하게 남겨두고 셔츠 전면엔 프린트를 넣었다. 부드러운 면 소재를 사용해 봄여름에 가볍게 입기 좋다.
크리스토퍼케이인 by 무이 면, 50만원대



액션 페인팅 기법을 사용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셔츠. 화려한 컬러가 부담스러운 시니어들도 쉽게 시도할 수 있다.
미하리아스히로 by 무이 면, 100만원대



리넨 소재의 가벼움이 부담스러운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면 셔츠 블루 셔츠. 기본 캐주얼 룩으로 매치하기 좋다.
오리안 by 맨즈 컬렉션 면, 29만원



얼굴색이 어두운 남성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라이트블루 컬러 셔츠. 팔꿈치 부분에 패턴 소재를 덧대어 포인트를 줬다.
비즈빔 by 맨온더본 면, 64만8000원



라이트블루와 리넨 소재가 여름 시즌에 잘 어울린다. 리넨 셔츠의 가벼운 소재감과 밝은 컬러로 스타일링하기 어려운 시니어는 톤을 맞춘 베이지색 팬츠를 권한다.
오리안 by 맨즈 컬렉션 리넨, 29만원



세련된 인디고블루 컬러에 가볍고 시원한 리넨 소재를 사용했다. 와이드 스프레드 칼라로 활동성을 강조했다.
오리안 by 맨즈컬렉션 리넨, 29만원

멀티브랜드 숍 'MUE' 바이어 조준우 팀장 화려한 색상과 과감한 프린트 셔츠에 도전하라

패션을 대하는 자세는 남녀를 막론하고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과감해 지거나 대세에 영합하거나. 체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편집숍 '무이'는 매 시즌 패션의 첨단과 고객의 취향 사이에서 노련하게 줄타기를 하는 곳이다.

'무이'에 입점한 다양한 아이템을 조율해 최고의 조합을 완성하는 바이어 조준우 팀장은 프린트와 컬러를 활용한 캐주얼 셔츠 룩을 제안한다. “2013년에는 밝은 레드와 오렌지 계열의 색상이 눈에 띈다. 플라워 프린트도 전면엔 등장했는데, 예년처럼 잔잔한 패턴이 아닌 커다랗고 과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 팀장은 이 같은 대담한 색상과 프린트의 셔츠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소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클래식 아이템'을 지목했다. “과감한 프린트 셔츠에 매치하는 팬츠는 가급적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고르세요. 저는 치노 팬츠를 추천합니다. 프린트 셔츠 위에 입을 재킷이나 카디건 등을 선택할 때는 프린트에 포함된 색상 중 같은 색상 계열의 아우터로 톤온톤 매치를 하면 뜸뜨지 않아 보입니다.” 단조로운 도심에서 주말을 보낼 때, 지인과의 가벼운 모임이나 집 근처 마트에 갈 때도 프린트 셔츠를 입으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프린트 셔츠의 기본 연출법을 익힌 후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셔츠 안에 타월릭을 입거나 벨트와 슈즈로 컬러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린트 셔츠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죠.”



CAR

인텔코리아이희성대표 엔진 성능은 기본! IT 기술이 경쟁력이다

자동차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한 기아자동차 K9. 기아자동차는 차량에 탑재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해 자동차의 진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텔코리아와 파트너십을 맺어 더욱 진보된 2013년형 K9을 선보였다. 인텔코리아 이희성 대표가 말하는 자동차 그리고 K9.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나는 남자다라고 말하는 듯한 당당한 외관의 K9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미래지향의,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대변하는 자동차라는 느낌이 강하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코리아에 사원으로 입사해 영업부, 네트워크 엔지니어, 영업총괄 전무 등을 거쳐 2005년부터는 인텔코리아를 총괄하게 된 이희성 대표, 사원에서 CEO가 되었다는 이력 때문인지 20대 젊은이들을 위한 강연에 초대받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젊은이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가 있

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도 도전하라.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나의 소신과 K9은 닮은 점이 있다. 멋진 외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적인 차량이라는 점이다. 기존 자동차 시장은 쇼퍼드리브카와 오너드리브카로 양분되어 있는데, K9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타입의 대형 세단이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이지 않은가.”

쇼퍼드리브, 오너드리브 모두 OK

자동차에 컴퓨팅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인텔은 기아자동차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까닭에 기아자동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희성 대표는 특히 K9 예산론자. K9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탑승자와 주행감을 즐기는 운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량이라는 점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란 쉽지 않은 법. 그렇지만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 연구·개발한 결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선보인 것이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K9을 구매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현대 도시인들의 삶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자동차로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한 주 내내 자동차와 함께하니 말이다. 기업의 CEO들에게 자동차는 제2의 사무공간이자 휴식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탑승자로서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K9의 정숙성과 승차감에 대해 말하자면 단연 최고다. 또한 실내 공간이 넓고 좌석 쿠션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도로나 급커브를 지나도 차체에 충격이 전해지지 않고 실크처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느낌이 압권이다. 이동 중임에도 마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듯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고 이희성 대표는 말한다.

한편 직접 운전을 해보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K9의 특징.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주행 특성을 4개의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주행 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환경이나 운전자 취향에 맞게 차량의 상태 변경이 가능하다. 질주 본능을 가진 남성이라면 그야말로 주行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국산차 중 최초로 적용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해주는 요소다. 다양한 차량을 접해본 이희성 대표가 평가하는 K9의 주행감은 어떨까.

“운전할 때 느껴지는 다이내믹함이 유럽 자동차를 연상시킨다. 나라마다 그리고 자동차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럽국가 자동차는 반응이 빠른 편이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면 곧바로 연결되어 마치 나와 자동차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이랄까.”

말하자면, K9은 권위보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CEO를 위한 자동차다. 다소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 때문에 권위를 중시하는 이들이라면 선택을 망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 경영자니까 무게감 있는 차를 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고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직원이나 고객에게 허물없이 다가가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주말에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이에게는 제격인 차다.

IT 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인텔리전트 카

자동차회사들이 지금까지는 강력한 엔진 성능에 주력해왔다면 최근 들어 글로벌 카 브랜드들은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 편리성,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전자, IT 기술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인텔코리아와 기아자동차의 파트너십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업무 때문에 피곤에 지친 CEO가 K9을 타면서 어떻게 하면 차 안에서 피로를 씻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이동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한다. 최첨단 모바일 기기로서 디지털 라이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유제 인터페이스(UI)를 통해 K9의 편리한 AVN(Audio, Video, Navigation)을 경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OS, 미들웨어, 통신용 칩 등 복잡한 요소와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텔코리아는 이런 요소들을 통합 구현하는 근본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에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있다.” K9에 탑재된 인텔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은 앞좌석용 대시보드의 터치스크린과 뒷좌석용 클론 디스플레이 등 두 개의 독립적인 화면으로 구성돼 차량 내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바로 즐길 수 있다. 대시보드의 터치스크린은 ‘DIS(운전자 정보시스템) 내비게이션’과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유보(UVO)’와 연동되어 인터넷 접속은 물론 음성 인식, 스마트폰 원격 시동, 도난 추적 등 첨단 기능과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뒷좌석 탑승자용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비디오 포맷과 3D 그래픽 퍼포먼스, 블루투스 등을 지원해 프리미엄 사운드와 와이드 스크린으로 풍부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미래에는 탑승자를 인식하고, 명령어 한마디로 스스로 운전하는 등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다. 얼마 전에 무인 자동차 개발 성공에 관한 기사도 나왔듯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관건은 기술이다. 이번에 성공한 무인자동차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000개 이상 들어갔다. 기계가 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려면 엄청난 지능이 필요하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한두 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해낼 수 있으면 대중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미래 자동차에 사용할 운전자 지원시스템 등 똑똑하고 안전한 자동차의 두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희성 대표, K9에 이어 기아자동차와 인텔코리아가 함께 만들어낼 ‘스마트 인텔리전트 카’에 대한 기대감이 더한다.



내비게이션 인텔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을 탑재한 기아자동차 K9. 앞좌석용 대시보드의 터치스크린과 뒷좌석용 클론 디스플레이 등 두 개의 독립적인 화면으로 구성돼 차량 내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바로 즐길 수 있다.

“K9은 합리적인 차량이다. 최첨단 기능을 탑재했지만 그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 않고, 차체를 가볍게 만들어 연비도 높였다. 트림과 옵션을 단순화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SOCIAL

은퇴 후 인간관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퇴직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도 심상치 않다. 평생을 유지한 관계가 이다지도 쉽게 무너질 줄이야... 새로운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다. 일상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기억에서 잊히지만 어떤 일들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대표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건은 은퇴가 아닐까. 은퇴만큼 개인의 삶을 바꾸는 사건은 드물다.

직장은 우리가 가장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직장을 기반으로 한 개인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간이 흘러 인간관계가 성숙함에 따라 그 역할 또한 더욱 비중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간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성숙도와 역할의 비중이 절정에 달하는 시점에 모든 것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그것이 바로 은퇴다. 은퇴로 인해 겪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은퇴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은퇴증후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가정은 가정의 은퇴를 전후로 자녀의 독립 혹은 출가를 맞는다. 세대 구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는 은퇴자의 배우자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은퇴 후 급변하는 인간관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나의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 형성에 몰두해야 한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앞만 보고 달려온 은퇴자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기존 인간관계의 단절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을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 형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모든 정신적·물질적 자산을 은퇴자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

간임을 명심하자.

또한 은퇴자는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껏 가족 구성원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자책하거나 부정하지 말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이 출발부터 부정적이면 그에 따른 피해는 가족 구성원 모두와 영구적인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관계 안에서 나의 역할 변경을 구성원과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 어르신의 요양까지 지원하는 공공·민간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이제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고민하기보다는 국가와 민간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은퇴 후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 너무 당황하지 말자. 예견했던 변화 아닌가. 은퇴와 인간관계에 대해 앞서 고민하고 경험한 여러 선배 은퇴자의 성공담과 실패담에 귀 기울여보자.

가족 간 이상적인 대화법

성인 자녀들은 일정한 주제에 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가 커뮤니티케이션 전문가인 애리조나주립대의 제이크 하우드 박사와 함께 고안해낸 대화법을 소개한다.

40~70 대화법(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라

평소 보고 느낀 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본다. 부모님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해결책은 무엇일지 물어보는 게 좋다. 부모님이 그 상황에 대해 부정할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화를 나눠라

부모님의 시력이 감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야간주행이나 장거리 운전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방의 차원에서 미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 아가에게 말하듯이 하지 말아라

대화 상대가 성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윗사람 행세를 하며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는 연로한 어르신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독립성을 극대화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부모님이 집 안에서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어질러져 있다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가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사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좋다.

▶ 도움을 요청하라

노화에 따른 여러 증상은 부모님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 지역 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70~40 대화법(부모님이 성인 자녀와 대화할 때)

▶ 주장하라

주장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 사안을 먼저 화제로 삼아라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덮어두고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 있다. 사사건건 따지려 든다면 자신도 지치고 주위 사람들이 대화를 피할지도 모른다.

▶ 사안을 먼저 화제로 삼아라

자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화제로 삼아보라.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솔직하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자녀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다.

▶ 방어적이지 않게 반대하라

자녀가 부모님의 운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운전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를 함께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다.

▶ 합의점을 찾아보라

상대방의 말에 90% 반대하더라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잊지 말아라. 공통점을 찾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시작이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녀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자녀의 말이 당장은 마뜩지 않더라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전 세계 특별한 시니어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시니어들이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교감의 폭이 넓다. 친해지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니어 커뮤니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과의 어울림, 키즈나 모임

일본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다. 타인과 어울림이 자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친구들조차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일본 고령자들의 고독사(孤獨死)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유관하다. 2011년에는 고독사로 외롭게 세상을 등진 사람이 2만6000명이나 된다. 이런 가운데 '키즈나(絆)' 모임은 외로운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림의 공간이 되고 있다. 키즈나란 '영어매다' 혹은 '무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우리 식으로는 서로 간의 유대, 정(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는 키즈나란 단어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던 지난 2011년, 일본한자검증협회는 올해의 한자로 키즈나를 선정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기에 많은 일본인이 이에 공감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 위안받고 싶은 일본인들은 '키즈나 모임'을 만들었다. 갖가지 테마의 키즈나 모임을 자발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후 키즈나 모임은 크게 확산됐다. 결혼 대상을 찾는 미혼 여성부터 친구가 필요한 시니어까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일본인이 키즈나 모임 열풍에 동참했다. 하쿠호도(Hakuhodo) 생활소비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15~69세 인구의 47.6%가 키즈나 모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인 2명 중 1명꼴이다. 한 사람당 평균 2.6개의 모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모임을 위해 쓰는 돈만 연간 4조1000억 엔(약 48조 원)으로 추정된다.



식사를 통해 유대감을 갖는 로미오클럽

미국에는 유명한 외식 모임 '로미오클럽(www.romeoclub.org)'이 있다. 은퇴한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 은퇴하고(retired) 나이 든(old) 남성(men)의 외식(eating out)에서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기 마련. 특히 은퇴 이후 함께 어울릴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전의 직장 동료들과는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와는 관심사가 다르니 긴 시간을 함께하기가 어렵다. 로미오클럽은 이런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미국 전역에 지역별로 모임을 꾸리는 로미오클럽은 미국 시니어들이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클럽 참석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쟁 무용담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야기한다. 뉴욕의 레스토랑 메트로 다이너(Metro Diner)에 가면 로미오클럽 회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티셔츠와 모자 그리고 머그잔 등으로 회원들 간의 동질성을 표현한다.



건강 챙기며 친구도 사귀는 기공 체조

2009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억67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050년에는 4억3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인 3명 중 1명꼴이다. 다행인 것은 중국이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 노인 친화적인 나라라는 점이다. 실제 중국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을 고소해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부모와 자녀가 아예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아 외롭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시니어 모임이 유독 많다. 베이징의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근처의 르탄공원(垚坛公园)은 시니어들의 대표적인 모임 장소이다. 르탄공원은 베이징에서 가장 신록이 우거진 공공장소 중 하나로,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수천 명의 노인이 모여든다. 기공체조를 하기 위해서다. 수중에 따라 나뉘는 50개기량의 그룹 중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정해 함께 체조를 한다. 춤을 추는 이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집단 운동, 집단 체조 등을 통해 시니어 간에 동질감을 찾는다. 건강관리는 덩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니어 모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자랑한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덕분에 국민들의 IT 친화력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이미 3000만 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1위, 유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4위이다. IT 기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SNS로 소통하는 시니어들도 늘고 있다. 시니어파트너즈가 50대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SNS로 새해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이 그만큼 높아진 효과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50대와 60대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각각 46.8%와 35.9%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SNS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 시니어들이 많아졌다. 시니어 포털 사이트 어스타이저(www.yourstage.com)에 가면 이러한 시니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어 공부, 문화유적 답사, 스포츠 댄스, 컴퓨터, 사진 등 다양한 종류의 클럽을 자체 운영한다. 클럽 수도 지난해 500개를 넘어섰으며, 꾸준히 새로운 클럽을 개설하고 있다. 시니어들이 주축이 된 문화포털 사색의향기(www.culppy.org)도 시니어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공간이다. 메일 서비스를 받는 회원이 150만 명 이상이며, 100여 개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SENIOR CARE

부모님 부양, 이것이 해법이다

편찮은 부모님을 보살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

사례 01 부모님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서울 양천구의 최모(48) 씨. 그는 최근 들어 형제들과 사이가 부쩍 서먹해졌다고 말한다. 타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는 것. 최 씨 형제는 비교적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했지만, 어떤 일인지 얼마 전부터는 안부전화조차 뜸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씨의 어머니는 추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었지만 그나마 이웃들이 일찍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다행이 수술이 잘 진행돼, 위험한 상황은 넘길 수 있었다. 퇴원까지는 약 두 달이 걸렸다. 하지만 예전의 건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혼자 힘으로는 거동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어머니를 돌봐줘야 했지만 동생들은 난색을 표했다. 집에 수험생이 있다거나, 맞벌이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최 씨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장남의 여개는 무거웠다. 결국 최 씨의 아내가 휴직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모두 아내의 몫이 됐다. 최 씨의 아내는 1년 가까이 어머니를 홀로 돌보고 있다. 그런 탓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유독 우울한 기색이 강하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최 씨는 걱정이 된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지친 아내는 대화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동생들도 전혀럼 자신을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 부양을 돕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쌓여서일 것이다. 최 씨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를 놓고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형제들 모두가 짐을 적절하게 나누어 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각기 환경이 다르므로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에게만 무리한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랬다가는 자연히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가족 사이의 믿음이 깨지고 서운한 감정이 생긴다면 적절한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모님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요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런 경우 전문 케어기버(caregiver)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Home Instead
시 니 어 케 어

가족처럼 돌보는 어르신의 동반자

(주)홈인스테드코리아는 세계 최대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미국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한국 법인으로 2008년에 설립된 업체. 본사와 동일한 케어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청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출 동행, 투약 관리, 식사 준비, 안전한 집안 환경 유지, 심부름, 치매환자 돌보기의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의 02-3218-6243, www.homeinstead.co.kr

사례 02 치매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은 전문 케어프로그램으로 상태가 한결 호전됐다.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권모(51) 씨 역시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해왔다. 권 씨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동반한 치매 증상이 있어 누군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을 포기한 채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시설 입소도 고려해보았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왠지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내 생각을 접었다. 결국 가족들이 모든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보살폈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어머니의 우울증이 악화되면서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갈수록 커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자연히 가족 간의 다툼이 일었다. 최 씨는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고,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가 '홈인스테드코리아'를 알게 된 것은 이 무렵이다. 홈인스테드코리아는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으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업체 담당자로부터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전문케어 서비스를 권유받은 최 씨는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4시간씩 케어기버가 최 씨의 집을 찾았다. 치매 케어 교육을 이수한 전문 케어기버는 어르신의 인지 자극을 위한 치매 케어 프로그램과 운동 보조를 진행한다. 서비스 시작 후 가족들은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긴 시간은 아니라 해도 가족 개개인의 시간이 생겼을뿐더러 어머니는 더 체계적인 케어를 받았다. 서비스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들 속을 태우던 어머니가 약 3개월 만에 웃음을 되찾은 것. 1년이 지난 후에는 뜨개질을 하여 만든 소품을 가족에게 선물할 정도가 됐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자 가족들도 화목을 되찾았다.

사례 03 어르신이 건강한 경우에도 케어기버의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김모(50) 씨는 케어기버 덕을 톡톡히 봤다. 김 씨의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이지만 최근 들어 부쩍 우울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것이 김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자신과 아내 모두 직장에 매여 있는 터라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홈인스테드코리아는 김 씨에게 동반자 서비스를 권했다. 동반자 서비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어르신 대상의 홈케어 프로그램으로, 케어기버가 문화 체험, 대화, 쇼핑, 산책 등을 함께 하면서 가족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신개념 케어 서비스다. 일주일에 하루 케어기버가 김 씨의 가정을 방문해 동반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오래지 않아 케어기버와 친숙해졌다. 그동안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가지 못한 곳을 케어기버와 함께 다니면서 쉽게 마음을 타놓게 된 것이다. 이제는 자녀에게는 못하는 이야기를 케어기버에게는 쉽게 말할 정도가 됐다. 한번 터진 말은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다. 김 씨는 작은 투자를 했을 뿐인데 가족 간의 화목을 되찾았으며 만족해하고 있다. 케어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홈인스테드코리아의 양명주 사무국장은 "가족 간 불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럴 경우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 케어기버의 도움을 받아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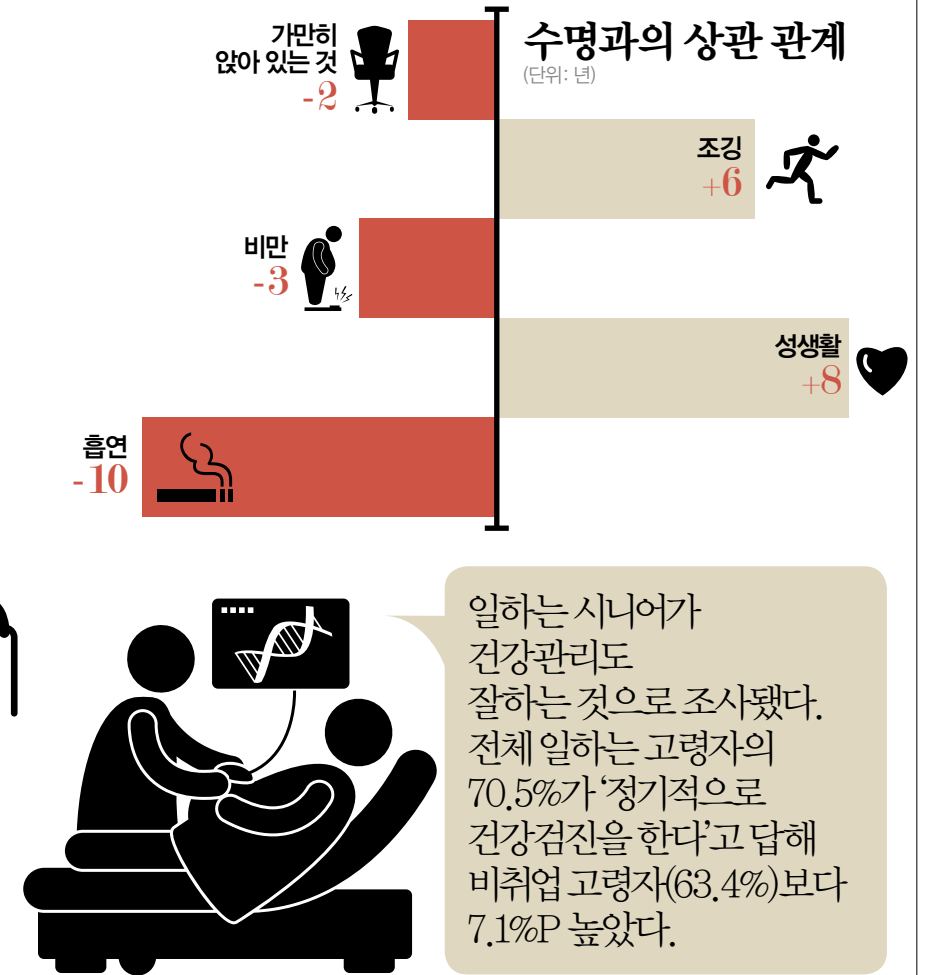
이제는 50+ 시대

인간의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00세 시대를 외치는 이즈음, 50세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를 넘어섰고 20년 후에는 5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시니어가 대세인 지금, 각국 시니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KOREA
100세 이상 고령자 수



장수비결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절제된 식습관**을 꼽은 이가 800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긍정적인 마음**(31%), **규칙적인 생활**(30.9%)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중 85세 이상 장수한 부모나 형제가 있는 고령자는 33.3%에 불과한 반면 66.7%가 부모나 형제 중 장수한 사람이 없다고 답해 **장수비결이 유전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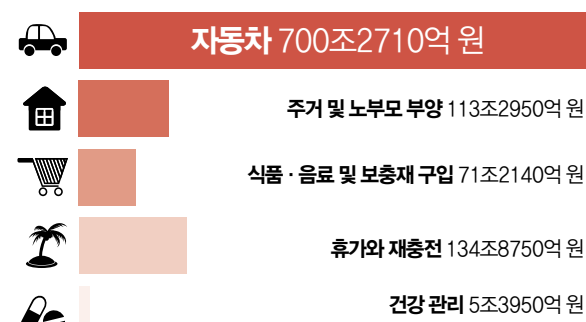


일하는 시니어가 건강관리도 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일하는 고령자의 70.5%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답해 비취업 고령자(63.4%)보다 7.1%p 높았다.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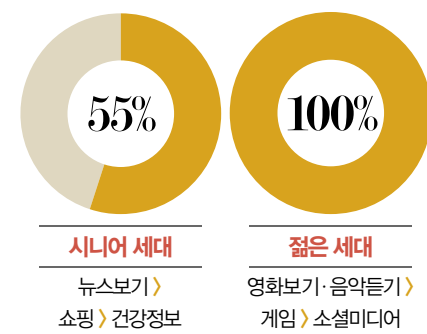
50세 이상 시니어의 소비 성향

(연간 소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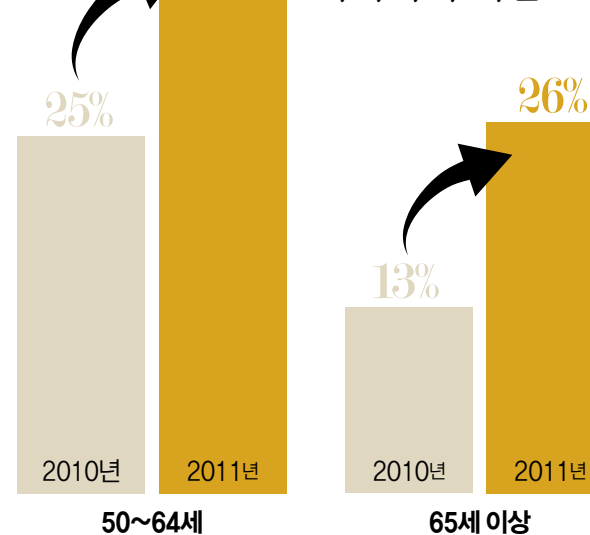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의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 차이

스마트폰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젊은 세대와 달리 **시니어 세대의 55%만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생각.



인터넷 이용자 중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니어의 비율



1년 사이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8세~29세 젊은 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 증가율 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시니어들의 인터넷 가입 비율은 젊은 세대에 비해 낮은 반면 **인터넷 가입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비율은 젊은 세대보다 시니어들이 높게 나타나** 시니어들이 소셜미디어를 한번 접하게 되면 그 매력에 더욱 빠져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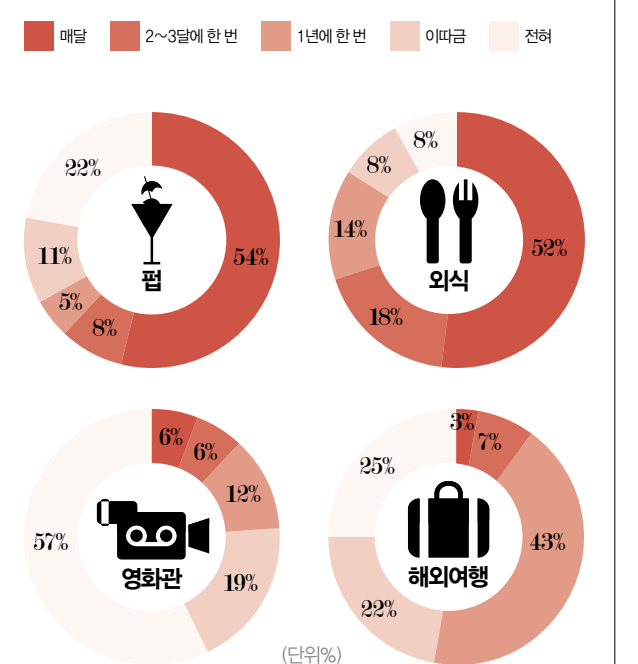
CANADA

ZOOMER 세대

Citytv 설립자인 모리스 즈니아머는 '50+'로 일컬어지던 시니어를 자신 이름의 앞글자 **Z와 Boomer(베이비붐 세대)**를 합성해 '**Zoomer 세대**'라고 지칭. 베이비붐세대와 그 이상의 연령층을 포함하는 Zoomer 세대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며, 연금을 가장 장기간 납부한 세대이며, 경제력 파워 또한 막강하다. **그렇다면 65세의 Zoomer는 어떤 사람일까?** 신체 나이는 65세이지만 정신 나이는 45세, **성욕은 25세, 마음은 10대라고.**

IRELAND

50세 이상 시니어들의 여가생활



INSURANCE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3500만 원이고, 순자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4600만 원 정도이다(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2012). 부동산은 현 거주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는 많이 부족할 편.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수입을 고스란히 지출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외에 인간의 본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과신(過信)'을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편견 중 하나로 꼽는데, 그래서인지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0.7세, 건강 수명은 72.6세다. 인생의 10%가량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 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웬만한 질병은 치료가 가능해 보나 검진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나이가 들수록 진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헬스푸어(health poor)가 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이 필수다.

AIA생명의 '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과거 병력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만 통과하면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간편 심사 건강보험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질병(예컨대 위염)으로 투약 중인 사람은 민영건강보험 가입 신청 시, 특정 부위(예컨대 위, 십이지장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가입 직전 2년(암의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가입이 가능하고 보장 내용도 다

른 가입자와 차이가 없다. 노년층이나 과거 병력자 등 일반 의료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고령화로 개인과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보험 보장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건강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보험 소외층인 노년층 및 유병력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건강보험이다"라고 AIA생명 마케팅 총괄 마크 스탠리 부대표는 말한다. 또한 신한생명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 등 치매 관련 보장 확대와 함께 노인성 8대 질병(특약가입 시)과 사망위험까지 종합 보장하는 '신한 Big플러스 실버보험'을 선보였다. 기존 실버보험은 만 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반면, 20세부터 70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득 공백기를 채워줄 연금 보험

앞서 말했듯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중심 자산은 부동산이다. 이런 경우 은퇴 이후 필요한 시기에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연금 보험이다.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복리를 바탕으로 한 장기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 시점까지 3억 원을 목표로 한 경우, 4% 수익률을 가정하면 50세에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월 203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40세부터 시작한 사람은 82만 원으로 목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의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저금리 시대에 안정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이다. 일정 목표수익률을 달성해야만 스텝업 기능을 보장하는 기존 변액보험과 달리 매년 직전 보증금액 대비 증가분을 반영해 더 많은 스텝업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증비용은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인 0.5%를 적용한다. 더불어 스텝업 발생 시마다 '오토 리밸런싱(적립금 자동재배분)'을 통해 계약자 적립금의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비중을 일정 비율로 자동 변경해준다. 합리적인 스텝업 보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오토 리밸런싱으로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로 변경해 안정성을 높인 것. 또한, 연금개시 전 지급되는 '실적보증형 설계자금'을 통해 연금 계획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급 기간 내에 매년 발생하는 실적보증형 설계자금은 자유설계적립금으로 이전, 가입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 공백 기간인 55세~65세에 맞춰 가교 연금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삼성생명의 '브라보 7080 연금보험'은 주택마련과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이 비교적 젊은 기간에 노후 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내는 월납 방식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방식을 혼합해 보험료 납입을 짧게 할 수 있다는 점, 12~15년 이상 적립 후 개시되는 일반 적립형 연금 상품과 달리 가입 후 최소 7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기 집중형 연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이후 기간에 받는 연금보다 2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른바 '신보릿고개', '은퇴 크레바스'로 불리는 50대 중반에서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연금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가교연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의 02-5581-5881, 3114, www.samsunglife.com 신한생명(1588-5580, www.shinhanlife.co.kr) 푸르덴셜생명(1588-3374, www.prudential.co.kr) AIA생명(080-433-5000, www.aia.co.kr) Copyright/mulibis

제대로 든 보험이 노후에 효자 노릇 한다

한국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든 보험이 든든한 노후 대책을 보장할까.

다양한 종류의 상품 중 은퇴 이후 편안한 삶을 위해 가입해야 할 두 가지를 꼽자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다.



BULLETIN

Gallery

진달래-축복展

흔하지만 한국인에게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꽃 진달래. 진달래를 통해 한국적 미를 표현해온 서양화가 김정수 작가의 〈진달래-축복〉소품전이 열린다. 바구니에 진달래 꽃잎이 수북이 담긴 작품, 도시의 빌딩 사이로 또는 시골의 언 땅 위로 진달래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신만의 색채로 형상화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 작가는 새로 시작하는 정부와 새 희망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한다. 김정수 작가는 홍익대 미술을 졸업하고 1983년 프랑스로 건너간 뒤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위해 골몰하다 1995년부터 진달래를 소재로 작업을 해왔다. 〈진달래-축복展〉은 3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갤러리 작. 문의 02-2155-2351



〈진달래-축복〉, 2013년



장 미술 바스키아展

검은 피카소로 불리는 '낙서화자' 바스키아. 1988년 27세의 나이로 드라마 같은 삶을 마감한 바스키아는 짧지만 왕성한 8년간의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매혹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들의 조합은 당시 미국 미술계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엔 그의 작품 18점이 서울에 왔다. 국내에서 바스키아 개인전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엔 공개되는 작품들 중에는 다양한 해부학 도상 이미지가 여럿 눈에 띄는데, 이는 일곱 살 무렵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해부학 책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다고 한다. 3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 문의 02-735-8449

Stage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40~60대 대한민국 아저씨들은 주목!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직장 상사로서의 책임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남성들을 춤이라는 추상적인 몸의 언어로 재조명한다.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는 몸의 움직임을 탐구,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접목해 공연으로 발전시킨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주제로 한국 현대무용의 영역을 확장해온 무용가 안은미와 두산아트센터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안은미컴퍼니는 6개월간 카베라를 메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불특정 남성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춤을 기록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02-708-5001



〈지금 철학할 시간〉

철학에 대해 묻는 우리의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대답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 '소크라테스의 변론', '파이돈', '크리톤', '에우티프로' 등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저작에서 소크라테스의 답을 빌려왔다. 말하자면 소크라테스의 직강 철학개론이라 할 수 있다. 철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법정 진술에 끈질긴 생명력을 부여하는 원천을 규명하는 한편, 그의 철학적 안목으로 우리 삶을 반추하고 싶었다는 뜻을 전한다. 한석환 저, 유리창

〈세상을 바꾼 경제학〉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주요 인물 11명의 인생과 그들의 연구 업적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수상자와의 인터뷰를 실어 그들의 참모습을 보다 진솔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점은 이 책의 특별한 매력이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인 존 내쉬부터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폴 크루그먼까지! 아자와사이언스연구소 저, 김영사



〈예술감상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67가지〉

예술과 친해지고 싶다면? 기본을 아는 게 우선이다. 이 책은 예술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각 장르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엄선해 소개한다. 이 한 권으로 예술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 다만 궁금한 것 많은 '예술초보'들에게는 쉽고 재미있는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현대미술의 족보나 빌레의 길래, 판소리 예인들의 삶 등 누군가에게 묻기 멋졌었던 내용들이 전부 들어 있다. 김소영 저, 소울메이트

Books



서울대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 과정' 개설

서울대학교가 시니어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최고경영자와 전문인을 대상으로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 과정' 제1기생을 모집한다.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되는 이 과정의 프로그램은 주요교수인 환경계 서울대 노년은퇴설계 지원센터장과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이 구성했다. 국내외 웰에이징·시니어산업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과정 이수 후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 대상은 시니어산업 및 관련업체의 임원급 이상의 경영자, 정부 및 각 공공기관의 시니어산업 정책 결정자, 시니어산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일반인 등이다. 수업 일정은 4월 23일부터 12월 10일(매주 화요일)까지. 원서는 4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887-2215

Education

Food



우리 먹거리 가게 '5도락'

최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가게가 문을 열었다. '5도락'이란 이름의 이 가게는 강원도 영월에서 제주도 애월까지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먹거리 장인들의 솜씨를 한자리에 모은 곳. 몸에 좋은 음식을 통해 우리의 건강은 물론, 지역을 살리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명인이 해조류로 직접 만든 부각 튀김, 발효의 시간을 거친 장아찌, 산야초와 매실효소 등 착한 음식들이 한가득이다. 앞으로 5도락은 각 지역의 맛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각종 창작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모든 먹거리 가격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구입하는 가격과 동일하다. 5도락 매장은 인사동 쌈지길 B1에 위치한다. 문의 02-722-3252

HUBLOT



에비뉴엘 부티크 02 2118 6208
갤러리아 EAST 02 540 135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6021
현대백화점 본점 02 3438 603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 3467 8734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 245 222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051 810 4123



HUBLOT

Hublot Classico Ultra-Thin Skeleton.
Extra-thin skeleton movement
manufactured entirely by Hublot, with 70
hours of power reserve. Case crafted
in a new unique red gold alloy: King Gold.
Black rubber and alligator-skin strap.

www.hublot.com • twitter.com/hublot • facebook.com/hublot